

재외동포의



2014 | 02

특집 | 한인들의 풀뿌리 운동 결실

미국 버지니아주 의회 동해 병기 법안 가결



OVERSEAS KOREANS FOUNDATION

재외동포재단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인쇄물 무구정광대다라니경

8세기 중엽에 간행된 '무구정광대다라니경(국보 127호)'은 1966년 10월 13일 경주 불국사의 석가탑을 보수하기 위해 해체했을 때 2층 탑신부에 봉안되었던 금동제 사리의함에서 발견된 것으로 현존하는 목판 인쇄물 중에서 세계 최고(最古)임을 공인받고 있다. 이는 너비 약 8cm, 전체길이 약 620cm이며 1행 8~9자의 다라니경문을 두루마리 형식으로 적어놓은 것이다. 다라니경은 죄를 씻고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다라니(일종의 주문)을 외우고, 작은 탑을 만들어 그 속에 이 경전을 모셔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불경이 봉안된 석가탑이 751년 김대성에 의해 불국사가 중창될 때 세워졌으므로 이 불경은 그 무렵 간행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본문 가운데 중국 당나라 축천무후 집권 당시만 썼던 글자들이 발견되어, 간행연대를 추정할 수 있게 해준다.

이 인쇄물이 발견되기 전까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인쇄물은 770년경에 간행된 일본의 '백민탑다라니'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이것은 전문을 다 새긴 것이 아니라 '무구정광대다라니경' 중에서 발췌하여 새긴 것으로, 판각술도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 훨씬 정교하며 글자체가 예스럽고 힘이 있다. 따라서 목판인쇄술의 성격과 특징을 완전하게 갖추고 있는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야말로 인간이 인쇄한 것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인쇄물이라 할 수 있다.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 1천200년이나 온존하게 된 비결은 닥나무 껍질의 섬유질로 만든 종이의 질이 최고급이었기 때문이다. 종이는 8세기의 일본 종이에 비해 2배나 높은 밀도를 지녔고 모르핀, 니코틴 등의 알칼로이드 성분을 이용해 세균과 벌레를 막았던 것으로 연구 결과 밝혀졌다.



1. 불국사의 석가탑. 2층 탑신부에서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 발견됐다. 2. 무구정광대다라니경. 3. 무구정광대다라니경 목판본.





Cover Story

미국 버지니아주(州)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East Sea)와 '일본해 (Sea of Japan) 병기를 의 무화하는 법안이 2월 6일 압도적인 표차로 주하원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 통과는 "한인들의 힘과 미국 민주주의의 힘을 알린 사건"이라고 평가 받고 있다.

CONTENTS

재외동포의 창



02	한국의 일	무궁장광대다라니경
04	특집	미국 버지니아주 의회 동해 병기 법안 가결
06	동포소식	설맞아 각국 한인 대표 제언 "한인 권익 신장에 앞장" 외
10	기획 재외동포 이민사 소개 2	반세기 넘은 캐나다 한인 이민
12	화제	한국 기획전은 성황, 일본 부스는 철거당해
14	글로벌 코리아	인화 재한조선족유학생네트워크(KCN) 회장 아미추어 청년 댄스팀 '아트퍼머스'
16	지구촌 통신원	미주 한인의 날, 자랑스러운 한인상 시상 무오독립선언 95주년 기념식 중국 선양서 개최
17	동포정책 Q&A	"온라인으로 발급 신청 가능해요"
18	한민족 공감	박근혜 대통령 인도·스위스 순방 '세일즈 외교'
19	동포의 창	서상태 중앙아프리카 한인회장
20	OKF뉴스	'찾아기는 이해교육' 토론회 외
22	동포문학	2013년 동포 문학상 수상작
23	우리말 배워봅시다	바른 말 고운 말 날말 맞추기
24	고향 소식	낙동강이 굽이굽이 빛어낸 마을
26	재단공지 및 독자후기	

2014 02 February

발행인 | 조규형 등록번호: 문화-라 08249 발행처 | 재외동포재단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번지 외교센터 6층 전화 | 3415-0100 팩스 3415-0117 www.korean.net / webzine.korean.net
기획·편집 | 재외동포재단 홍보문화사업부 pr@okf.or.kr 제작 | 연합뉴스 인쇄 | 한신HP

- ▶ 재외동포재단(Overseas Koreans Foundation)은 대한민국 외교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으로 전세계 700만 재외동포의 권익신장과 거주국에서의 주류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본지는 국제교류기금을 지원받아 발행하고 있습니다.
- 본지는 webzine.korean.net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웹진의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www.korean.net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매월 발간되는 '재외동포의 창' 웹진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한인들의 풀뿌리 운동 결실
미국 버지니아주 의회 동해 병기 법안 가결



미 국 버지니아주(州)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East Sea)와 ‘일본해 (Sea of Japan) 병기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2월 6일 압도적인 표차로 주 하원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같은 내용의 법안이 상원에서도 가결 처리된 바 있어 의회 절차는 완전히 마무리됐다.

버지니아주 하원은 이날 낮 리치먼드 소재 의회 의사당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티머시 휴고(공화) 의원이 발의한 ‘동해 병기’ 법안(HB 11)을 표결에 부쳐 찬성 81표, 반대 15표로 가결 처리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버지니아주 교육위원회가 승인하는 모든 교과서에 ‘일본해’가 언급될 때는 ‘동해’도 함께 소개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법안은 1월 29일 하원 교육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찬성 5표, 반대 4표로 넘고 나서 2월 3일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도 찬성 18표, 반대 3표로 통과했다. 상원은 1월에 하원 법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데이브 마스텐(민주) 상원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SB 2)을 소위와 상임위를 거쳐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역시 큰 표 차로 처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상·하원 법안 조율 작업을 거쳐 통합 법안을 테리 매콜리프 주지사에게 넘기고 주 지사가 서명하면 최종 확정된다. 이럴 경우 버지니아주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와 일본해가 함께 적히고 학생들도 동해라는 이름을 배우게 된다.

법안이 상·하원을 모두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한 것은 주미 일본 대사관이 로펌을 고용해 조직적으로 동해 병기 반대를 위한 로비를 펼치면서 한국과 일본 양국 간 외교전으로 비화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때 일본 측의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법안 통과가 무산되거나 통과되더라도 매콜리프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매콜리프 주지사는 그러나 안호영 주미 한국대사 등을 만나고 나서 연합뉴스스에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서명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이 운동을 주도해온 ‘미주 한인의 목소리’ (VoKA)의 피터 김 회장은 “주지사가 정식으로 서명할 때까지 이메일 보내기 운동을 벌이는 등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인정치역량확대계기

버지니아주 하원 전체회의에서 ‘동해 병기법안’이 통과된 직후 주 하원 내 유일한 한인계인 마크 김(민주) 의원은 이번 법 통과를 “한인들의 힘과 미국 민주주의의 힘을 알린 사건”이라고 평가하며 “이것은 끝이 아니다. 중대한 시작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1. 2월 6일 가결 처리를 앞두고 미국 버지니아주 하원의원들이 법안을 심의하고 있다. 2. 법안 가결 후 피터 김 '미주한인의 목소리' 회장(왼쪽에서 세번째)이 한인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3. 주 하원 전체회의에서 법안 취지를 설명하는 한국계 마크 김 (민주) 하원의원.

실제로 이번 법안 통과는 미국의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의 사례라는 의미가 크다. 버지니아주 내 공립학교 교과서에 '일본해'로 쓰여 있던 것을 이제는 '동해'를 함께 표기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이는 미국 연방정부가 견지하는 이른바 '단일 지명' 원칙과도 배치된다. 이는 그만큼 버지니아주가 '동해'의 역사적 맥락을 이해한 결과로 풀이된다.

한국이 식민지로 전락했던 시절 '일본해'라는 명칭이 일방적으로 정해졌다는 역사적 사실을 비판적으로 재해석한 것은 물론이고 이를 바탕으로 '동해'를 주장하는 한국인들의 보편적 정서를 제3자의 시각에서 받아들였다는 얘기가 있다. 이번 법안 통과를 주도한 팀 휴고(공화) 의원은 한국의 애국가에 명기돼 있는 '동해'의 의미를 강조한 뒤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희생당한 한국인들의 과거 식민시절을 상기시켰다.

버지니아주에 이어 뉴욕·뉴저지주에서도 '동해 병기' 입법화 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뉴욕주 한인회는 2월 8일 "뉴욕주와 뉴욕시 공립학교에서 동해와 일본해를 함께 표기하는 방안이 성사되도록 범 동포사회 차원에서 총력을 모으기로 했다"면서 교과서 동해 병기 법안 추진위원회를 서둘러 발족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토비 앤 스타비스키(민주당) 뉴욕주 상원 의원은 교과서 동해 병기 법안을 주 상원에 발의했고, 에드워드 브라운스타인(민주당) 뉴욕주 하원 의원도 같은 내용의 법안을 냈다고 뉴욕주 한인회는 밝혔다. 특히 뉴욕·뉴저지주 추진 상황에 따라 공립학교 교과서 동해 표기 추진 운동이 미국 전역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있다.

일본의 노골적인 우경화 바람 속에 최근 한국과 일본 사이에 과거사와 영토를 둘러싼 분쟁이 고조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교과서 동해 병기 법안 추진으로 미국 내 한인들의 조직역량이 강화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번 법안 통과 과정에서 한인단체들은 조직적으로 버지니아주 의원들과 주지사를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데 만만치 않은 실력을 보여줬다.

이는 이번 사례뿐 아니라 향후 한인들의 정치력 신장에도 큰 계기가 될 전망이다. 미국에서는 주요 입법 활동이나 정치활동 과정에서 합법적인 로비가 가능하다. 미국 내 한인들은 최근 들어 조직적으로 한인들의 목소리를 제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동해병기 법안과 함께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의 연방 하원 통과, 위안부 기림비 설립운동 등에서 이런 노력이 결실을 보고 있다.

마크 김 의원은 법안 통과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풀뿌리 운동의 힘을 이번에 확인한 만큼 우리의 힘을 더 키워나가야 한다"면서 "선거 참여나 정치활동을 더욱 확대해나가자"고 말했다. 



박종범 재유림한인총연합회장



오공태 재일본민단 단장



황찬식 재중한국인회장



이동우 대양주한인총연합회 회장



임도재 이중동총연합회장



이정순 미주한인총연합회장

설맞아각국한인대표제인 “한인 권익 신장에 앞장”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이해 각 지역의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동포단체 수장들로부터 새해 포부와 현안, 주요 추진 계획 등을 들어보았다.

이정순 미주한인총연합회장은 “올해는 미국에서 선거가 있어서 한인의 권익을 높이는 데 절호의 기회”라며 “150여 개 지역 한인회와 미주총연이 공동으로 대대적인 선거 참여 캠페인을 벌이겠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재외동포재단으로부터 배정받은 3억원의 예산을 활용해 차세대 육성 콘퍼런스를 열 계획이고 올해의 한인회장대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뜻을 밝혔다.

오공태 재일본민단 단장은 한일 관계 회복을 위해 민단이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신년 포부를 밝혔다. 오 단장은 “2015년은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으로 경색된 관계를 푸는 것이 제일 급선무”라며 “풀뿌리 차원의 교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찬식 재중한국인회장은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결성 15년이 된 이 단체를 중국 정부에 등록해서 합법화하는 것”이라며 “상반기 중 해결을 위해

정부 국무원 심의에 상정해 놓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2년 연임에 성공한 박종범 재유림한인총연합회장은 “한인 1세대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일은 차세대에게 정체성을 심어주는 일”이라며 고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호소했다.

임도재 이중동총연합회장은 “아프리카 중동 지역은 내전 등으로 열악한 상황이라 위급 시 피란할 수 있는 자구책 마련이 중요하다”며 “총연합회 차원에서 20만 달러 기금을 조성했는데 더 확충해 나가겠다”고 올해 역점 사업을 소개했다.

최근에 임기 2년의 대양주한인총연합회 회장 임기를 시작한 이동우 씨는 “11월에 호주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맞춰 호주와 뉴질랜드 주요 도시에서 한국 알리기 행사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제자·스승·학부형 함께한 흥겨운 설맞이 민속잔치

이훈우(동경한국학교 부설 토요학교 교감)

동경한국학교 부설 토요학교는 얼마 전 설날을 맞아 민속의 날 행사를 학



민속의 날 행사에 참가한 학생과 교사 및 학부모들이 강당에서 강강술래를 배우고 있다.

교 강당에서 열었다. 이날은 학생 450명, 학부모 200명, 교직원 50명이 참가해 모처럼 외국에서 우리 기락의 놀이를 듣고 즐기며 고향에서 맞던 설의 따뜻한 인정을 주고받았다.

첫 행사는 설의 문화와 예절을 익히는 시간으로 시작했다. 담임선생님을 중심으로 교실에서 설의 유래, 설날 하는 일, 세배하기, 설음식 등을 배웠다.

둘째 시기에는 운동장에서 학생, 교사, 학부모가 함께 어우러져 팽이 돌리기, 줄넘기, 투호, 굴렁쇠, 널뛰기 등의 민속놀이를 체험하며 즐겼다.

마지막에는 강당에 전체가 다 모여 사물놀이 장단에 맞춰 강강술래, 청어 엮기, 대문놀이 등 우리의 노래와 율동을 체험했다.

민속 체험을 처음 해보는 학생이 예상보다 많아 처음에는 힘들어하고 어색하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재밌어하며 신나게 참여했다. 간식으로는 전통과자인 약과를 맛보기도 했다.

재외동포 700만 명 시대에 외국에서 사는 동포로서 우리의 언어뿐만 아니라 문화와 역사도 소중히 지켜가야 하기에 지난해부터 설과 추석에 민속의 날 행사를 열고 있는데 참여 열기가 뜨겁다. 앞으로는 한국 학생만이 아니라 거주국 학생들도 함께하는 지역축제로 발전시키고 싶다.

추병국 교장은 오늘 인사말에서 "민속의 날 행사를 더 다양하게 구성해 내실 있고 즐거운 잔치가 되도록 노력할 테니 토요일학교에 관심과 애정을 보내 달라"고 당부했다.

동경한국학교 부설 토요일학교는 한인 자녀 400명과 성인반 100명 내외로 학생을 받아 가르치고 있다. 4월 19일에 신학기가 시작하며 유아반, 유치반, 초등학생반, 중학생반, 성인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테레사 김사이판 최초 한인 대법원 판사 취임

미국 연방사법부는 지난 16일 테레사 김 테노리오(40·김경선) 씨의 상급법원 배석판사 공개임명식을 1월 24일 CNM(북마리아나제도) 고등법원에서 열었다.

취임식에서 김 씨는 이 자리에 오기까지의 인생 역정과 주변의 도움, 성장 과정에서 겪었던 가족 간의 갈등과 화합의 과정을 소개했다.

김 씨는 "17살에 미혼모가 되었지만 부모의 격려를 받아 아이를 키우면서도 대학 공부를 마쳤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서 로스쿨까지 마치고 변



테레사 김 대법원 판사

호사로 우뚝 설 수 있었다"며 "인생에서 잘못 판단한 순간 망설이지 말고 과감하게 벗어나려는 '결단'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3일 로이 이노스 주지사는 상급법원 공석을 채우기 위해 김 테노리오 씨를 후보자로 추천했다. 위원회 추천서에 따르면 의회는 만장일치로 그녀를 배석판사로 임명하는 것을 동의(확정)했다. 지난해 12월

22일 그는 이노스 주지사의 취임 선서와 함께 정식으로 업무를 보기 시작했다.

김 씨는 이노스 주지사의 법률변호사였고, 이전에 개업 변호사를 거쳐서 북마리아나 연방 부지사와 의회의 법률변호사로도 근무했다.

1976년 사이판에 이민해 한인회장을 역임한 김용찬 씨의 장녀인 그는 1997년 앤 아버(Ann Arbor)에 있는 미시간대학에서 미술학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1년 5월에는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해 뉴잉글랜드 로스쿨을 졸업했다. 그녀는 제9연방순회항소법원과 북마리아나 연방을 포함한 5개 관할구역에서 변호사 일을 하기 위한 자격도 취득했다.

소치 올림픽 참가미대표팀 유니폼 제작한 한인

2014 러시아 소치 동계올림픽에 참가한 미국 대표팀의 카디건 유니폼을 재미동포가 제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인공은 캘리포니아주 커머스 지역에서 봉제업체 '볼 오브 코튼'을 운영하는 한인 부부 에디(61)·엘리자베스 박(56) 씨. 이들 부부는 동계올림픽에 출전한 650명의 미국 대표선수가 입을



2014 러시아 소치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미국 대표팀 650명의 카디건 유니폼을 제작한 재미동포 에디(61)·엘리자베스 박(56) 씨 부부(오렌지카운티 레지스터지 제공)



카디건 유니폼을 제작해 납품했다고 2월 4일 오렌지카운티 레지스터지가 전했다.

미국 대표선수단은 7일 개막식의 각국 선수단 입장 순서에서 이 카디건을 입고 등장했다. 카디건은 한 벌에 596달러씩 팔리고 있다. 미국 대표팀이 개막식에서 입은 유니폼 상의는 패치 워크풍의 양털 제품 카디건으로 별과 줄무늬 손잡이를 달았고, 성조기와 올림픽 마크가 그려져 있다.

박 씨가 운영하는 봉제공장은 종업원 50여 명을 둔 중소기업이지만 이번 동계올림픽의 미국 대표팀 유니폼 제작으로 사세가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내 박 씨는 "선수 650명이 입을 카디건을 제작하느라 종업원과 하루 평균 12시간을 일했다"면서 "미국 대표팀의 유니폼을 공급해 자랑스럽다"고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한인 소재 다큐, 부에노스아이레스 독립영화제에 초청

한인을 소재로 한 아르헨티나의 장편 다큐멘터리 '한국 노래가 오는 4월 2일부터 열흘 동안 열리는 '2014 부에노스아이레스 독립영화제'(BAFIC)에 초청됐다. '한국 노래'는 극작가이자 연극 연출가인 구스타보 다리오와 퓨전 예술가인 자엘 투흐스나이테르가 공동 감독을 맡은 작품. 소프라노 정안나 씨를 중심으로 아르헨티나 한인들의 일상과 함께 종교 생활, 음악 활동 등을 담고 있다.

이 작품은 아르헨티나 시문화예술과학진흥원이 뽑은 우수 영화에도 선정돼 8만 페소(650만 원)의 진흥기금을 받았다.

투흐스나이테르 감독은 지난 2008년 정 씨와 그의 남편 오동희 비즈드레곤 대표를 만나 한인사회를 경험하고 이를 소재로 영화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워 다리오 감독과 함께 지난 2012년 4월부터 작업에 들어갔다.

투흐스나이테르 감독은 1월 29일 현지 동포인터넷 매체인 '코르넷(Komet)'과의 인터뷰에서 "한인사회에 대해 깊이 알고 싶었고, 정 씨가 아내이자 어머니이자 며느리로 생활하는 모습을 보며 수줍은 성격에도 자신의 한계에서 조금씩 벗어나려는 그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고 싶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만든 영화를 2012년 6월부터 '한국 노래'라는 제목의 복합공연으로 꾸며 무대에 올렸고, 이 공연 실황을 다시 카메라에 담아 작품을 완성했다.



장편 다큐멘터리 '한국 노래' 관계자들. 왼쪽부터 투흐스나이테르, 다리오, 황진이, 정안나, 비에나티 씨(코르넷 제공)

영화에는 아르헨티나 액터 전문학교(ISER)를 수석으로 들어가 졸업한 뒤 아르헨티나 국영TV 최연소 앵커, CNN 스페니시(Spanish) 아시아 문제 분석가 등으로 활동하고 국제 변호사로 일하는 한인 황진이 씨도 등장한다. 정씨는 "투흐스나이테르 감독이 공연과 다큐멘터리 제작을 제안했을 때 친구로서 도와려는 마음과 늘 연극을 동경해오던 마음에 기꺼이 동참하게 됐다"며 "이 영화를 통해 한국의 K-팝과 아름다운 가곡·민요가 세상에 알려졌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거주국 불우이웃 돕는 각국 한인회 손길 '흔한'

세계 각국에 살고 있는 한인들이 거주국의 어려움을 돕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 감동을 주고 있다. 엘살바도르 한인회는 지난해 12월 29일 엘살바도르 제2의 도시인 산 미겔 주의 차파라스티케 화산이 폭발해 인근 주민 수천 명이 대피하고 작물 피해 등이 발생하자 구호물품을 모았다. 엘살바도르 한인 교민 수는 350여 명에 불과하지만 약 1주일간 의류 1만여 벌, 양말 3천여 켤레, 담요 1천여 장이 답지했다. 한인회는 대통령궁을 방문, 기증식을 열고 카를로스 라파엘 엘살바도르 사회통합부 장관에게 구호물품을 전달했다.



1월 31일 한인회는 대통령궁을 방문, 기증식을 열고 카를로스 라파엘 엘살바도르 사회통합부 장관에게 구호물품을 전달했다.

한인회 측은 "엘살바도르 한인회는 현지인 공립학교에 교육용 장비를 기증하고 인성교육용 교재를 제작해 기증하는 등 현지 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지 사회에 대한 봉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다짐했다.

해마다 설을 앞두고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 밀가루를 기부해온 몽골한인회는 올해도 울란바토르에 거주하는 불우이웃 가정 100곳에 밀가루 각 10kg, 총 1t을 기증했다. 몽골은 한국과 같은 음력설을 '차강사르'(흰색의 달)라는 이름의 명절로 최고 있으며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양고기과 고기만두를 나누는 풍습을 지키고 있다.

이에 앞서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10개월여간 계속되는 내전 때문에 우리 정부로부터 철수 권유를 받고 있는 한인들이 피린민들을 위해 쌀 140 포대를 전달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 한인회는 "피린민의 구제는 구호기구의 몫이지만 마음이라도 전하고 싶었다"며 "정부 대표와 정권이양 임시위원장이 관계 장관과 함께 한인회 사무실을 찾아 감사 인사를



하는 등 우리의 마음을 반겨주어 기쁘다”고 뿌듯해했다.

후학 키우는 뉴질랜드 캔터베리 장학금과 시니어 사랑방

윤교진(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한인회장)

한인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차세대 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뉴질랜드 남부의 대표도시인 크라이스트처치를 중심으로 한 ‘한국장학재단’이 지난 연말에 설립돼 첫 행사로 ‘캔터베리 장학금’ 수상자 7명을 선정해 최근 수여식을 열었다.

수여식은 크라이스트처치의 푸초센터에서 한인회가 주관한 ‘시니어 사랑방’의 설 떡국 나누기 행사와 함께 열렸다.

양정석 마스터즈 홈론 대표, 신동욱 진스오토 장학금 1회 수상자, 윤교진 크라이스트처치 한인회장, 이호창 코리아리뷰 발행인 등 한인 사회의 리더인 4명은 지난해 1월 장학금 수여식을 끝으로 14년간 지속한 진스오토(김진섭 대표) 장학금이 폐업으로 중단되자, 그 명맥을 이으려고 장학재단을 설립했다. 장학금은 총 1만 달러로 최우수 성적 졸업생에게 2천 달러를 수여하는 등 모두 1천 달러 이상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시니어 사랑방’의 설 떡국 나누기 행사 중간에 ‘캔터베리 장학금’ 수여식이 열렸다.

메리언고교를 수석으로 졸업해 2천 달러의 장학금을 받고 오타고대학의 보건학과에 진학할 예정인 이입주 양은 “3년 전 지진으로 학교 건물이 아닌 다른 곳에서 수업을 받는 등 어려움도 많았지만, 끈기를 갖고 노력했을 뿐인데 수석졸업에다가 뜻밖의 장학금까지 받게 돼 감사할 따름”이라며 “더 열심히 공부해 격려에 보답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 밖에도 뉴질랜드 능승시험인 NCEA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서장원(성앤드루고), 양주연·김준수(번사이드고), 윤기훈(미들턴그레인지고), 이진석(성베테스고), 전해린(메리언고) 학생이 장학금 수혜를 누리게 됐다.

양정석 위원은 “우수한 성적으로 고교를 졸업하는 한인 학생을 격려하고 더 열심히 학업에 정진하라는 의미에서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며 “한국장학재단은 비영리단체로 세제 혜택이 가능한 만큼 많은 분이 동참해 더 많은 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후원을 호소했다.

한편, ‘시니어 사랑방’의 설 떡국 나누기 행사는 모든 한인 가족이 참여해

떡국과 함께 다양한 장기자랑과 명절놀이를 펼치는 잔치 한마당으로 열렸다.

특히 초대 한인회장을 역임했고 시니어 사랑방 회원인 이성방 원로는 “한인 2세대들이 열심히 학업에 정진해 뛰어난 성적을 올려 무척 기쁘다”며 수상자들을 축하했다.

도쿄서 한류로 경색된 한일 관계 녹이는 영화제 개최

재일동포들이 얼어붙은 한국과 일본 간의 관계를 한류 TV 드라마와 영화로 녹이기 위한 축제를 연다.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도쿄지회, 재일한국인연합회, 재일한국농식품연합회, 재일한국음식업협회, 도쿄한국상공회의소 등은 오는 3월 21일부터 10일간 도쿄 신오쿠보의 코리아타운에서 ‘제1회 신오쿠보 드라마 & 영화제’를 개최한다.

주일 한국대사관과 한국문화원도 양국 관계의 악화로 큰 손실을 본 재일동포 경제인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협력과 후원을 지청했다.

드라마 & 영화제 실행위원회(이하 위원회) 이승민 대표위원장은 “한일 관계가 악화하면서 신오쿠보의 코리아타운에 일본 고객의 발길이 뚝 끊기고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1회 신오쿠보 드라마·영화제 준비 모임’에는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재일한국인연합회 등 여러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상가들은 매출이 떨어져 문을 닫는가 하면 도산하는 기업도 속출하는 등 코리아타운 전체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어 너나 할 것 없이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고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영화 10편, 드라마 5편 이상이 상영될 예정이다. 아직 개막작은 결정되지 않았다. 영화는 다목적홀 ‘스튜디오 오’를 중심으로 상영되고, 드라마는 신오쿠보 코리아타운 일대의 공연장과 규모가 큰 카페 등에서 선보인다.

영화제에는 일본인들도 참여한다. 코리아타운 내 일본 상가들도 적극적으로 돕고 있으며, 위원회의 절반은 일본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민간 차원에서 여는 첫 한일 합작 영화제로 기록될 전망이다.

경색된 양국 관계를 푸는 데 포커스를 맞춰 인기 배우의 무대 인사와 함께 팬 사인회, 출연자·감독과의 토크쇼 등 다양한 이벤트를 결들일 예정이다.

‘다문화 지역 신오쿠보의 미래 구상’, ‘한인사회의 여러 문제를 함께 생각하고 대화한다’라는 주제의 심포지엄과 일본인과 외국인이 함께 이야기하는 토크회 등도 열릴 예정이다. 



반세기 넘은 캐나다 한인 이민 유학생으로 시작한 이주 역사

미 국으로의 초기 한인 이민과 같이 캐나다로의 초기 이민에서 개신교 선교사들이 이민의 산파 역할을 했다. 캐나다인 선교사들은 1888년에 처음 한국에 입국했다. 인원은 적었지만 이들은 헌신적인 노력으로 중국이나 일본보다 뒤늦게 개국한 한국에 기독교와 서구문물을 소개하기 시작했다.

선교사들은 종교 외에도 교육, 의료 등의 사업을 통해 민심을 얻었다. 한국에서도 자연스럽게 신도가 늘어나면서 캐나다 선교사들은 자신들의 목회와 선교 역할을 분담하기 위해 한국인을 목회자로 양성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유망하고 젊은 한국 청년들에게 장학금을 앞선하여 캐나다로 유학을 보내게 되었는데 이것이 캐나다 이주의 시작이었다.

1920년대부터 김관식 목사 등 여러 명의 한국인 신학생이 캐나다 선교부의 도움으로 캐나다에서 수학했다. 그러나 이들은 대부분 한국으로 돌아가 교수 등으로 일했으며 본격적인 한인 이민사는 1947년 10월에 의사 황대연 선생이 앨버타주 애드먼턴에 도착하여 라멘트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를 한 것이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황 선생은 1958년에 온타리오주에서 개업의로 안착하여 백인 주민을 상대로 19년간 의료 봉사를 하다가 토론토로 옮겨 여생을 보냈다.

1935년과 1946년 사이에는 제2차 세계대전의 여파 등으로 유학생이 끊어졌다가 전쟁 후 캐나다 교회가 전후 복구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유학 후원을 재개하면서 1950~1960년대에는 더 많은 학생이 캐나다로 오게 되었다. 1953년 5월 31일에 부인과 함께 캐나다로 이민한 서정욱 씨는 토론토에 발을 붙인 한국계 이민 1호로 기록된다.



외교 관계 수립으로 한인 이주 대폭 확대

1960년대 중반까지 정착한 한인들은 주로 목사, 의사, 학자들이 대부분이라 1960년대 후반부터 입국하기 시작한 '거주자' 이민자들과는 특성이 매우 달랐다. 1963년 한국과 캐나다 정부가 정식으로 외교관계를 수립하며 한국의 이민 장려 정책에 힘입어 캐나다 이민도 점차 늘어났다. 한인들의 캐나다 이민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65년 가을에 반도호텔에 캐나다 이민관이 나와서 이민 희망자들로부터 신청서를 받은 후의 일이었다. 그때 한국에서는 이민 붐이 일어서 캐나다의 이민관이 내주는 매달 200장의 신청서가 2시간도 안 가서 동이 날 정도였다고 한다.

1965년 당시 캐나다의 한인 인구는 70여 명으로 추정되고 한인사회는 토론토에 중심을 두었다. 1965년 1월 10일 창립된 몬트리올 한인연합교회는 23명의 신도가 창립예배를 드리면서 시작된 캐나다 거주 한인 동포 최초의 교회로 기록된다. 1966년에는 밴쿠버 한인연합교회, 1967년에는 토론토 한인연합교회, 토론토 한인장로교회 등이 잇달아 세워졌다.

1966년 캐나다 정부가 개방적인 이민정책을 선포한 이후 한국인의 캐나다 이민의 길이 크게 개방됐으며 토론토가 한인 이민자의 중심지로 자리를 잡았다. 한인 이민은 1973년에 서울에 주한 캐나다 대사관이 개설되면서 가속화되었고 1976년 캐나다 이민법의 개정으로 삼촌, 형제 등 친척이민이 단절되기까지 한인 인구는 급격히 증가하



1. 2013년 7월 11일 캐나다 오타와 의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캐나다 수교 50주년 기념행사. 이 자리에는 캐나다 하원의 한인 출신 의원 보좌관들이 배석했다. **2.** 개신교 선교사는 캐나다 이민의 산파역을 했다. 사진은 캐나다 출신의 맥레(D. M. Macrae) 선교사가 1898년부터 1937년까지 우리나라에서 선교활동을 하며 남긴 사진 중 세브란스의전 교수 시절의 의학생 실습 모습이다. **3.** 연극 '김씨네 편의점'의 출연진. 앞줄 가운데가 주인공 김 씨 역을 맡은 이선형. 뒷줄 오른쪽이 극본, 제작, 연출을 맡고 직접 집 나간 아들을 연기한 최인섭 씨.

였다. 1974년부터 1976년까지 한인 인구는 9천449명으로 급증했다. 특히 1974년에는 4천331명이 이민을 와서 단일 연도로는 최고를 기록하였다.

1980년대 들어 사업 이민자 수가 크게 늘기 시작했다. 1987년 한인 이민자 총수 2천276명 가운데 사업이민은 881명, 1988

년에는 총 2천264명 중 과반수인 1천535명이 사업이민자였다. 한인 동포들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이 도시에 몰려 살면서 자영업을 하거나 봉급생활자로 일하고 있다. 토론토의 소규모 가게는 90%가 한인들의 손에 들어갔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캐나다 한인 이민자 가정의 삶을 유쾌하게 그려 호평을 받은 연극 '김씨네 편의점'(Kim's Convenience)은 이런 현실을 잘 그리고 있다. 캐나다 한인 1.5세인 최인섭(41) 씨가 극본·연출·제작·출연 등 1인 4역을 맡은 이 연극은 2011년 토론토 프린지 페스티벌에서 초연돼 연일 매진 사례를 기록하며 143개 출판작 가운데 '베스트 프린지 10'에 뽑혔고, 2012년에는 토론토연극비평가협회가 선정하는 '올해의 연극상'에서 최우수작품상을 받았다. 최근에는 이 연극이 영화로 꾸며진다고 해서 화제가 되었다.

동포들이 늘어나면서 한인회도 속속 결성됐다. 토론토에서는 1966년에 한인회가 생겼고, 1977년에 현재의 한인회관을 구입했다. 캐나다의 한인회는 대부분의 주요 도시에 결성돼 있으며 노인회, 상록클럽(노인단체), 여성회 등도 다수 있다. 외교부가 발간한 '2013년 재외동포 현황'에 따르면 2012년 12월 기준으로 재외동포 인구는 701만 2천492명이며, 캐나다 동포는 20만5천993명으로 조사됐다. 齣



프랑스앙굴렘국제만화제의 일본군 위안부 만화전 한국 기획전은 성황, 일본 부스는 철거당해

일 본군 위안부 만화 기획전으로 관심을 끌었던 프랑스 앙굴렘 국제만화 페스티벌이 2월 2일 폐막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축제 기간인 1월 30일~2월 2일 나흘 동안 총 1만7천여 명이 앙굴렘시 앙굴렘극장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한국만화기획전 '지지 않는 꽃' 전시장을 찾았다고 밝혔다.

한국 기획전에는 이현세, 박재동 등 한국을 대표하는 만화가들 비롯해 프랑스에서 만화가로 활동한 김금숙, 박건웅, 신지수 등 유럽에서 인지도가 높은 작가 등 19명의 만화, 일러스트 20편과 동영상도 출품됐다.

관람객은 청년, 중장년 개인뿐 아니라 초·중·고교 단체 등 다양한 계층을 망라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는 계기가 됐다. 관람객 수는 개막 당일 3천200명에서 이틀째는 4천600명, 사흘째는 5천400명 등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났다.

일본 측의 지속적인 기획전 취소 압력과 방해에도 이처럼 많은 관람객이 들 수 있었던 이유는 기획전 주제의 보편성과 관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제1차 세계대전 발발 100주년을 맞아 여성에 대한 전시 폭력이라는 위안부 문제의 보편적 성격이 관람객의 공감을 얻는 데 성공한 것이다.

일본 측은 한국 기획전이 앙굴렘 만화제 취지를 왜곡한다고 주장하면서 기획전 때까지 지속적으로 반대 움직임을 보였다. 축제 조직위원회도 일본의 반대를 의식해 조선 여성가족부 장관이 만화제 개막 전날 프랑스와 한국 기자들을 대상으로 개최할 예정이던 파리 기자 설명회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일본 만화계는 한국 기획전에 대응해 아시아관 전시 홍보 부스에 위안부 문제의 실상을 왜곡한 작품들을 전시하려다가 개막 전날 조직위 측으로부터 부스를 철거당했다. 프랑 봉두 위원장은 "일본 전시장에 있었던 전시물이 극단적인 정치 성향을 보였다"고 부스 철거 이유를 설명했다.

일본은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앙굴렘 만화제에서 일본 측 작품이 철거된 데 대해 1월 31일 "치극히 유감"이라는 견해를 밝힌 것을 시작으로 언론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 주프랑스 일본대사관은 현지 언론사에 "한국 정부가 주도하는 위안부 전시가 만화를 통해 문화 교류와 우호 친선을 취지로 하





3. 앙골렘 국제만화제서 관람객들이 한국만화기획전 출품작을 관람하고 있다. 2. 프랑 봉두 앙골렘 국제만화제 조직위원장이 한국기획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지지 않는 꽃'을 찾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3. 앙골렘 국제만화제에 마련된 한국 만화 전시 코너. 4. 프랑스 관람객이 한국만화기획전을 본 뒤 위안부 할머니에게 격려 메시지를 남기고 있다.



4

는 앙골렘 만화제를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일본 외무성 문서를 배포하기도 했다.

봉두 앙골렘 만화제 조직위원장은 한국전 개막 기자회견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이 전시가 제1차 세계대전 등 과거의 잘못을 반성할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니콜라 피네 만화제 아시아 디렉터도 "이번 전시는 한국과 일본을 넘어서 기억과 역사에 대한 문제"라면서 한국 기획전이 "정치적 선전"이라고 주장하는 일본 측 주장을 반박했다.

관람객들 '충격적이다' '마음이 아프다' 소감 글 남겨

출품 작가로서 현지에서 사인회 등을 하고 돌아온 박재동 화백은 2월 4일 "프랑스 만화제에서 일본 만화가 차지하는 비중이나 탄원서 규모 등을 생각하면 조직위가 흔들릴 수도 있었지만 단호하게 안 된다고 했는데 그게 프랑스 지성의 힘이 아닐까"라며 "조직위는 '역사적 사실을 이야기하는 게 어떻게 정치

적이다. 역사를 왜곡한 게 오히려 정치 행위'라는 태도를 보였는데 멋졌다"고 설명했다. 현장에서 관람객의 반응을 생생하게 접한 그는 "사람들이 소감을 남기는 벽 공간이 마련됐는데 금세 뿅뿅하게 글이 가득 찼다"고 덧붙였다. 소감 글에는 '이런 일이 있었던 줄 몰랐다' '충격적이다' '마음이 아프다'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는 게 박 화백의 설명이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애니메이션학과 교수인 박 화백은 이번 전시에 '끝나지 않는 길'이라는 작품을 냈다. 가로 2m에 세로 20cm 크기로 오른쪽 끝에 살구꽃 등이 핀 마을이 그려졌고, 마을에서 뻗어 나온 길이 어두운 색의 공간을 지나쳐 왼쪽 끝으로 이어진다. 왼쪽 귀퉁이에는 한복을 입은 소녀가 서서 울고 있다. 그는 이 작품에 대해 "할머니들의 마음속에는 아직 위로받지 못한 소녀가 울고 있고 그것은 아직 끝나지 않은 일이라는 점을 알리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화제 속에서 전시가 열리자 프랑스의 다른 지역이나 중국, 한국 지자체 등에서도 전시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고 한다. 박 화백은 "순회 전시전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며 "작품을 책으로 내는 작업도 추진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인류의 기본권이냐 인간 본연의 입장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대할 필요가 있다"며 "할머니의 아픔을 치료하고 치유해야 일본과의 우정도 회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일본은 1965년 한일 협정으로 모든 게 해결됐다는 식으로 말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며 "일본은 다른 어떤 것보다 '할머니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느냐'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



안화 재한조선족유학생네트워크(KCN) 회장 “한·중 가교 역할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더 열심히 공부하고 한국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줘 한국 사회와 중국동포 사회의 가교 역할을 하고 싶어요.”

안화(29) 재한조선족유학생네트워크(KCN) 회장은 1월 24일 “조선족의 이미지 향상이 우리 모임의 취지”라며 이렇게 말했다. 재한조선족유학생네트워크는 지난해 말로 결성 10주년을 맞았고, 2년씩 한 기수로 운영돼 온 모임은 올해 6기에 접어들었다.

지난 10년간 국내 조선족 가운데 석·박사과정을 포함한 유학생이 많아지고 사무직에 종사하는 이들이 늘면서 ‘신세대 조선족’, ‘제3세대 조선족’이라는 말도 생겨났다. 6대 회장에 오른 안 씨는 “그동안 KCN을 거쳐 간 많은 선배가 한국과 중국 사회에 진출해 활약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동포 사회에 더 관심을 갖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 봉사 활동도 하는 등 한국 사회와 동포 사회 사이의 연결 고리가 되고 싶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중국 옌벤 출신인 그는 옌벤대학을 다닐 때 풍물 동아리에서 활동하는 등 특히 민족 문화와 공동체 활동에 관심이 많았다. 2008년 한국에 처음 와 낯선 환경에 적응하고 공부를 하느라 힘겨울 때 한국 생활의 외로움과 답답함을 풀어준 것이 KCN 선배들이었다. 그래서 석사과정 졸업 논문을 마친 뒤부터는 KCN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유학생들이 처음 한국에 와서 이는 사람도 별로 없고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지도 잘 모르거든요. 그렇게 막막한 가운데 KCN 모임은 어느 정도 소속감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런 점이 이 모임이 10년간 오래 유지돼 온 이유일 겁니다.”

KCN은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인 총회 행사와 함께 재한동포청년포럼을 비롯한 비정기적인 학술 세미나, 회원 간의 소모임도 열고 있다. 온·오프라인 회원을 모두 합치면 2천 명 정도 되지만, 중국에 돌아간 이들도 있어 실제로 활동하는 회원은 100명 안팎이다. 최근엔 석·박사 과정을 졸업한 선배들이 취업에 관한 조언을 해주는 취업 세미나가 인기가 있다.

안 회장은 시간을 내기 어려워 잠시 중단했던 봉사 활동을 재개하고 조선족 이주 가정의 어린 자녀들을 만나 상담이나 멘토링 같은 것을 해주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그는 건국대 생명공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따고 한 병원의 연구소에서 3년간 근무하다 연세대 행정학과 석사과정에 입학해 다시 공부 중이다. 두 분야를 결합한 융합적인 일을 하는 게 개인적인 꿈이라고 했다. 



1. 아트 파머스는 한국 댄스팀 중 최초로 태양의 서커스 무대에 서는 기록을 세웠다. 2. 마이클 잭슨 윈 공연에 출연한 아트 파머스 단원들.

아마추어 청년 댄스팀 '아트 파머스' 라스베이거스 마이클 잭슨 쇼 출연

필 요(Philyo·28)는 중학교 3학년 때 친구를 만났다. 춤을 추는 순간에 가장 빛나던 아이 와일디(Wyle.d)다. 대중에 떠들썩하게 알려지진 않았지만 '댄스계'에서 알음알음 소문이 나며 마음 맞는 친구들이 하나, 둘 모였다. 2005년 레아(Rea)와 함께 '아트 파머스' (Art Farmers)라는 이름의 팀을 만들었다. 예술을 짓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었다. 와일디를 포함해 지금의 팀원 10명이 모두 모인 건 2009년이다.

장르를 불문하고 생각이 닿는 대로 춤을 만들었다. 대학에 진학해 공부하는 대신 직접 필드에서 부딪쳐 배우며 실력을 쌓아 나갔다.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그림에서 영감을 얻은 '최후의 만찬' (2010), 인부들의 움직임을 표현한 '노동자의 하루' (2011) 등 아트 파머스만의 스타일을 구축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않은 곳에서 연락이 왔다. 세계적인 공연기업 태양의 서커스였다. 쇼비즈니스의 전쟁터 라스베이거스에 올릴 마이클 잭슨의 공연을 함께 만들어 보자고 그들은 제안했다. 세계적인 무대에 설 기회를 거머쥐게 된 것이다. 태양의 서커스와 마이클 잭슨 재단이 손잡고 400억 원을 투자해 선보이는 대형 상설쇼 '마이클 잭슨 윈(Michael Jackson ONE)' 에 그들은 그렇게 합류했다.

아트 파머스의 공동대표 필요는 "유튜브에 올린 영상을 보고 연락해온 거였다"며 "세계적인 공연에 참여하게 된 건 뿌듯한 일"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들은 공연에서 총 9곡의 무대에 출연한다. 그 중 '타블로이드 정키(Tabloid junkie)', '데이 돈트 케어 어바웃 어스(They don't care about us)', '스크림(Scream)', '더티 다이애나(Dirty diana)' 등 4곡이 그들이 맡은 메인 무대다.

"마이클 잭슨은 미국에서 우상이죠. 그렇다 보니 현지 관객의 열기가 정말 뜨거웠죠. 공연에 부담감은 없는데, 문득 뿌듯함을 느끼곤 해요. 어린 시절 우리가 사랑한 마이클 잭슨의 공연에 직접 서는 거니까요."

이들은 한국 댄스팀으로는 처음으로 태양의 서커스의 무대에 서는 기록을 세웠다. 소문이 조금씩 나면서 현지 한인들의 응원도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서**

미주 한인의 날, 자랑스러운 한인상 시상

강의영 | 연합뉴스 워싱턴 특파원

미국의 한국 싱크탱크인 한미경제연구소(KEI)는 1월 13일 워싱턴DC에서 '미주 한인의 날(Korean American Day)' 기념행사를 열고 현지 한국계 기업인인 사이먼 리(한국명 이수동) STG 회장과 마이클 양(한국명 양민정) 비컴닷컴 이사회 의장, 세라 페이지(한국명 반은경) 스냅페트 공동대표에게 '자랑스러운 한인상'을 수여했다.

이 회장은 1986년 정보기술(IT) 운영 시스템, 보안, 전산, 정보관리, 통합 IT 솔루션 등을 다루는 STG 그룹을 설립해 연매출 3억 달러(3천200억 원)에 1천700여 명의 직원을 거느린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활동하는 양 의장은 2004년 비컴닷컴을 창업하는 등 왕성한 창업 및 경영 활동을 벌이고 있다. 1998년 인터넷 가격 비교 사이트인 '마이사이몬(MySimon.com)'을 창업하고 나서 2년 만에 7억 달러에 매각해 화제가 됐으며 이후 인터넷 쇼핑 검색 엔진인 비컴닷컴(Become.com)'을 만들어 연매출이 수천억 원에 달하는 회사로 키웠다.

하버드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골드만삭스, 매켄지 등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페이지 대표는 위치 기반 패션 쇼핑 모바일 앱인 '스냅페트(Snapette)'를 창업했다. 이 회사는 미국 언론에 널리 알려지면서 실리콘밸리 투자자들로부터 140만 달러를 투자받기도 했다.

한인의 날은 1903년 1월 13일 102명의 한인 이민자가 미국 상선 갈럭호를 타고 하와이 호놀룰루 제2부두에 도착해 미국 땅에 첫발을 디딘 날로, 이날 행사에는 안호영 주미 한국대사,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인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현대차 딜러 출신의 마이크 켈리(공학·펜실베이니아) 연방 하원의원, 도널드 만줄로 KEI 소장 등 각계 인사 250여 명이 참석했다.



자랑스러운 한인상' 수여식. 왼쪽부터 도널드 만줄로 KEI 소장, 사이먼 리(한국명 이수동) STG 회장, 마이클 양(한국명 양민정) 비컴닷컴 이사회 의장, 세라 페이지(한국명 반은경) 스냅페트 공동대표



중국 선양서 열린 무오독립선언 95주년 기념식

무오독립선언 95주년 기념식 중국 선양서 개최

신민재 | 연합뉴스 선양 특파원

만주와 러시아 등지의 해외 독립운동 지도자들이 1919(음력 1918년) 우리나라의 독립을 최초로 선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한 무오독립선언 95주년 기념식이 1월 28일 중국 라오닝성 주선양(瀋陽) 한국총영사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조백상 선양총영사와 이성희 선양한인회장, 박해천 라오닝성조선족기업가협회 회장 등 현지 교민과 동포 대표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순국선열 및 항일독립투사에 대한 묵념, 민족대표 39인 영상 시청, 무오독립선언서 낭독, 만세 삼창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일본 도쿄에서의 2·8 독립선언, 서울에서의 3·1 기미독립선언 등과 함께 일제강점기인 1919년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3대 독립선언 가운데 하나인 무오독립선언(2월 1일)은 우리나라 최초의 독립선언일 뿐만 아니라 당시 항일투쟁의 실제 중심이었던 만주 지역에서 선포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또 독립을 위한 무장투쟁의 필요성을 역설해 실제로 이를 이끌어냈고 조소앙, 신채호, 안창호, 김좌진 등 무오독립선언에 참여한 민족대표 39인은 일제가 패망해 광복을 맞을 때까지 단 한 명의 친일 변절자도 없이 항일투쟁을 계속하거나 순국했다.

선양총영사관과 현지 교민 단체 등은 무오독립선언의 역사적 의미와 정신을 되새기기 위한 기념행사를 매년 정례화하고 국내외 관련 단체와 연계해 행사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재외동포 체류자격 신청과 연장 허가 “온라인으로도 발급 신청 가능해요”

Q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취득 요건은?

A 취득 요건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부모의 어느 한쪽 또는 조부모의 어느 한쪽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등이다. 이때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에는 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도 포함된다.

Q 국내에서 활동할 때 어떤 제한을 받는가?

A 재외동포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다만 단순 노무행위를 하는 경우, 시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 그 밖에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의 유지를 위해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활동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허용되는 취업 활동이라도 국내 법령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Q 재외동포 체류자격 신청 관련 서류는?

A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사증을 발급 받으려면 사증발급신청서에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그 밖에 본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외국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그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재외공관에 제출해야 한다.

부모 또는 조부모의 어느 한쪽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사증을 발급 받으려면 사증발급신청서에 직계존속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본인파 직계존속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그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출생증명서처럼 직계존비속의 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재외공관에 제출해야 한다.

사증 또는 사증발급신청서는 온라인으로도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온라인에 의한 사증 또는 사증발급신청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면 미리 사용자 등록을 해야 한다.

중국 및 독립국가연합 지역(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 국적을 보유한 외국국적 동포의 재외동포 체류자격 변경 허가 여부는 별도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홈페이지(www.hikorea.go.kr)의 '정보마당'에서 재외동포 체류자격 변경 관련 내용을 참조하면 된다.

Q 재외동포 체류자격에 따른 체류 기간 연장 방법은?

A 재외동포 체류자격에 따른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국내에 계속 체류



하려는 외국국적 동포는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38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병역 기피 목적인 경우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체류기간 만료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와 여권, 그리고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을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최초로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은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사실이 적힌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을 따로 제출해야 한다.

실제 사례로 본 재외동포 체류자격 신청

Q 제 아들(미국국적, 25세)은 국내 기업에 취업을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저희 부부(현재 미국국적으로 미국 거주 중)가 미국 영주권자로 아들은 미국에서 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신고 절차를 몰라 국내에 출생신고를 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 경우 제 아들은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지요?

A 사안의 경우 아들은 본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사실을 입증할 서류가 없으므로 부모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소지하고 있다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만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Q 저는 어려서 외국으로 입양되어 현재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외입양아가 국내 입국하여 학업을 병행하며 국내 취업 등을 하려는 경우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지요?

A 공식 입양기관이 발행한 입양 관련 서류나 국내 제적등본 등에 따라 출생 당시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이 증명되는 해외입양아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인도·스위스 순방 ‘세일즈외교’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로 모국과 상생” 당부



1. 인도를 국빈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동포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건배하고 있다. 2. 박근혜 대통령과 디디에 부르크할터 스위스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3. 박근혜 대통령이 디디에 부르크할터 스위스 대통령 내외와 국빈 만찬에 참석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새해 첫 순방으로 1월 15일부터 8일간 인도와 스위스를 차례로 국빈 방문하고 스위스에서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인 ‘다보스포럼’에 참석한 뒤 22일 귀국했다.

박 대통령은 15일 첫 국빈 방문국인 인도의 수도 뉴델리에서 동포간담회를 마련한 것을 시작으로 18일까지 3박4일간의 인도 국빈 방문 일정을 마쳤다.

박 대통령은 방문 기간 만만한 상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발전시키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또 지난 2010년 발효된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을 개선하고 이중과세방지협정을 개정하기로 합의하는 등 우리 기업의 인도 진출 확대 기반을 마련하는 경제 성과를 거뒀다.

박 대통령은 김백규 델리 한인회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동포간담회에서 인도 동포사회가 진출 초기의 역경을 헤쳐 나가며 단단한 기반을 다진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향후 한·인도 양국이 상호보완적 협력의 파트너로서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동포사회의 역할을 주문했다. 또 700만 재외동포들이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정부는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를 확충해 모국과의 상생 발전을 공고히 함으로써 우리 동포들이 국내외에서 저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

겠다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18일에는 스위스 베른으로 이동, 21일까지 국빈 방문 일정을 소화했다. 한국 정상으로는 최초로 스위스를 국빈 방문한 박 대통령은 20일 디디에 부르크할터 스위스 대통령과 정상 회담을 하고 경제, 과학기술, 문화, 안보

등 제반 분야에서 양국관계 발전을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사회보장협정을 비롯해 정부 및 기관 간에 협정 1건과 양해각서(MOU) 11건 등 총 12건의 협약을 체결했다. 또 기업들 간 총 5건, 1억7천200만 달러 상당의 부품소재 구매공급 협력 프로젝트가 성사됐다.

박 대통령은 스위스 동포 80여 명을 초청, 만찬을 함께하며 양국 관계 발전에 이바지하는 이들의 노력을 격려하고 동포 자녀들의 한글 교육을 위한 지원 강화를 약속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번 순방의 마지막 일정으로 21일부터 이틀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다보스포럼에 참석해 포럼 첫 번째 전체 세션에서 ‘창조경제와 기업이 정신’을 주제로 한 개막연설을 통해 창조경제 등 정부의 경제혁신 정책을 소개하는 한편 포럼에 참석한 글로벌기업 최고경영자(CEO)와 잇따라 만나 한국에 대한 투자 확대를 권유했다. **☞**

“내전 속에 노숙 피란민 쌀 지원 뿌듯”

서상태 중앙아프리카공화국 한인회장(특별기고)



1.2. 한인회가 피란민에게 기증한 140포대의 쌀 3. 중앙아프리카 임시정부 대통령대리 등 주요 인사들이 한인회를 방문해 서상태 한인회장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



중 앙아프리카공화국한인회는 1월 16일 내전으로 노숙생활을 하는 피란민을 위해 쌀 140포대를 전달했습니다. 내전으로 긴박한 상황이지만 피란민에게 구호물자를 전해주는 한인들을 설마 해코지하겠느냐는 심정으로 버텼습니다.

다행히 임시정부도 이를 크게 반겨주어 무척 고맙게 있습니다. 내전으로 위급한 상황이라 철수를 권유받았지만 남아서 피란민 돕기에 나서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내전이 한창인 1월 6일 수도 방기의 공항과 성당을 돌아보며 피란민의 어려운 처지를 어떻게 도울지 고민했습니다. 공판으로부터 철수하라는 권유를 받았지만 목숨이 턱에 차지 않는 한 하던 사업을 버릴 수 없고, 또한 더불어 살던 현지인의 어려운 처지를 두고 우리만 철수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한인회에서 50kg 쌀 40포대를 마련했고, 아중동한인회총연합회에서 5천 달러를 긴급 지원해주어 모두 합해 140포대를 피란민에게 지원했습니다. 이들의 구제는 유엔과 국제구호기구의 몫이지만 한인들이 따뜻한 마음만이라도 전달하고 싶어서 나섰습니다.

한인회가 피란민을 지원한 것은 이곳에 체류하는 외국인협회로서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정부 대표와 사실상 대통령 격인

정권이양 임시위원장이 관계 장관과 함께 한인회 사무실을 방문해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현지신문, TV, 라디오에서도 여러차례 보도됐습니다.

중아공은 10개월간 지속한 내전으로 많은 사람이 숨지는가 하면 가산을 약탈당한 채 집을 버리고 숲으로 도망가거나 공항, 성당으로 피신한 상황입니다.

선교사 가족 등 25명의 한인이 체류했으나 지난해 3월 쿠데타로 대부분 돌아가고 신부와 수녀 4명과 사업하는 두 가족 합해서 10명이 남아 있습니다. 정세가 안정돼 떠난 한인들도 돌아오고 한국 정부의 투자도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내전을 기독교 대 이슬람 세력의 전쟁으로 보는 시각은 잘못입니다. 미디어에서는 기독교 민병대니 이슬람 민병대니 하고 말하지만 무너진 정부가 기독교 정부도 아니고 기독교 민병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소외된 변방 종족, 반정부 세력 등이 아프리카 오지에 흔하게 있는 직업용병 무리를 이끌고 쳐들어 와서 정부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권력을 잡은 세력이 주로 이슬람계라고 해서 성급한 자들이 종교전쟁으로 몰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단히 말해 산적들이 정권을 잡았는데, 그들이 이슬람교를 믿는 것뿐입니다. 용병을 이용해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는데 줄 돈이 없어서 국민의 재산을 노략질했고, 견디다 못해 다수의 민초가 빈손으로 총 가진 자들에게 대들다 보니 많은 희생자를 낸 것이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㉞



재외동포 이해교육 국민참여 확대방안 토론회에서는 홍보 강화를 비롯해 다양한 의견이 쏟아져 나왔다.

‘찾아가는 동포 이해 교육’ 인식개선에 도움

재외동포재단(이사장 조규형)은 1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외교센터에서 ‘재외동포 이해 교과목 지원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서는 우선 재단 임직원들이 직접 강사로 나서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전국 22개 대학에서 실시한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교육’ 수강생 만족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재외동포 이해 교과목 개설과 관련해 재단에서 시범적으로 지원했던 3개 대학(한국외대, 인하대, 전남대)의 결과보고 및 지정토론이 진행된 뒤 재외동포 전문가들이 참여해 ‘재외동포 이해교육 국민참여 확대방안’을 놓고 심도 있게 논의를 펼쳤다.

김봉섭 재단 조사연구부장의 발표에 따르면 이해교육 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해교육이 대

학생들의 재외동포 인식에 대체로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임채완 전남대 교수는 “재외동포 전문가, 재외동포, 행정 실무가 등 여러 분야의 강연자를 초청해 수강생의 관심을 끌 수 있었다”고 소개했다. 토론회자로 나선 배중호 KBS 라디오 프로그램 ‘한민족 하나로’ 진행자는 “이해교육과 더불어 언론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송석원 경희대 교수는 “이해교육이 재외동포 관련 분야로 취업할 수강생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수강생 간 의견 교환의 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이사장은 “본격적인 글로벌 한민족 통합시대를 맞아 재외동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높은 이해와 관심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보고회 및 토론회를 통해 재외동포사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수렴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조규형 재단 이사장 ‘미주한인의 날’ 참석

조규형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1월 11일부터 5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했다. 조 이사장은 13일 뉴욕에서 ‘제54주년 뉴욕한인의 밤 및 미주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축하하고, 뉴욕한인회관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또, 동 지역 동포단체대표 및 한글학교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동포사회 현안과 한글학교 운영 현황 등을 파악했다.

15일에는 로스앤젤레스한인회를 방문하고 차세대단체 및 재외동포단체대표, 동포 언론사 기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동포사회 현안을 청취했다. 조 이사장은 “한인사회의 발전은 국력 신장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차세대 한인의 정체성 확립과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교육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규형 재외동포재단이사장이 배우한 미국 LA한인회장 등 한인회 관계자들을 만나 동포사회의 현안을 파악했다.

재일민단부인회, 모국 연수 기간 불우이웃에 온정 전해

서울 은평구 소재 사회복지법인 은평천사원에 있는 아이들이 설을 앞두고 일본에서 건너온 선물을 받고 웃음꽃을 피웠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시립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에 거주하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도 일본에서 고국을 찾은 동포들의 따뜻한 마음 씀씀이 덕분에 설 명절을 훈훈하게 보내게 됐다.

다음 아산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 산하의 부인회(회장 여옥선) 회원들이 1월 28일 두 복지시설을 찾아 온정을 나눴기 때문이다. 250명의 회원은 지난 26일부터 나흘 동안의 일정으로 모국 연수에 참여했다. 회원들은 이날 오후 두 팀으로 나눠 복지시설을 방문했다. 은평천사원에는 78명의 보육원생에게 일본에서 준비해온 과자 등 선물꾸러미와 성금 500만 원을 전달했다. 요양센터에는 성금 1천만 원과 함께 설 명절에 떡국을 끓여 드시라고 떡을 전하고, 노인들의 말벗이 돼주는 등 즐거운 오후를 보냈다.

33년째 모국 연수를 추진해온 여옥선(78) 회장은 “연수 기간 모국의 현대에 감사한 마음에 회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금했다”며 “명절을 앞두고 외롭게 지내는 어려운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은평천사원의 조성아(51·여) 원장은 “모두 손자 손녀를 대하듯 따뜻하게 아이들을 안아주기도 하고 즉석에서 성금을 보태는 등 훈훈한 시간을 보냈고, 일본에서 가져온 선물꾸러미에 아이들의 웃음이 활짝 폈다”며 고마워했다.

앞서 27일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한 회원 가운데 13명은 여성가족부로부터 표창을 받기도 했다. 여성가족부는 재일동포 여성이 한인사회와 고국 발전에 힘쓰며 봉사활동에 노력해온 노고를 위로하고 한민족 여성 네트워크를 확산하는 차원에서 2001년부터 표창장을 수여하고 있다. 조규형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27일 저녁 서울 명동 로얄호텔에서 환영 만찬을 열고 일본 속에서 재일동포 여성의 권리 신장과 모국 발전에 기여해온 공로를 치하했다.

회원들은 이병석 국회부의장과 환담하고, 29일 오전 로얄호텔에서 폐회식을 끝으로 모국 연수를 마쳤다. 이들은 연수 기간에 각 지부회장 회의를 개최해 65주년을 맞이한 부인회의 올해 사업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1949년에 결성된 재일본대한민국부인회는 일본 45개 지방본부에 16만 명의 회원을 두고 있다. 재일동포 여성의 권리 증진에 앞장서고 지방 참정권 획득 운동, 차세대 민족의식 교육, 한인 고령자 복지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는 재일민단 산하단체다.



모국 연수 기간에 사회복지법인 은평천사원을 찾은 민단부인회 회원들은 일본에서 준비해온 과자 등 선물꾸러미와 성금 500만 원을 전달했다.



강원도 하이원리조트에서 열린 정보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사업 워크숍에 참여한 관계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글로벌코리안네트워크 운영회 및 시스템구축 워크숍

재외동포재단은 1월 23일 오후 서울 시청앞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글로벌코리안 네트워크 운영의 안정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열었다.

운영위에는 김종완 재단 사업이사를 비롯해 한상사업부장, e한민족사업부장 등 내부 직원과 이금용 코글로닷컴 회장, 김경달 네이버 정책실장, 이성은 안정행정 부서무관, 서민정 외교부 재외동포과 서기관, 한경우 서울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는 2013년도 코리안넷 추진 결과 보고, 재외동포 우수인재 효율적 파악 방안과 콘텐츠 확대 및 활성화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

이어 24일부터 1박 2일간 재단 정보시스템 사업별 분석과 설계 결과 및 구축 방안에 관한 워크숍이 하이원리조트에서 열렸다. 워크숍에서는 한상넷 시스템 기능 보완 등 코리안넷 내실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집중 토의했다. 

주 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

강남옥 | (미국) 2013 재외동포문학상 시 부문 우수상

맨해튼 이스트 리버(East River) 돌 축대
녹두 색카펫 같은 물이끼 융숭하다
뉴욕커들의 희망 같은 느린 평화 철썩인다
인천 내려 서울 갈 때 내 옆구리 적시며
끝까지 함께 뛰던 장한 한강
울컥 그립다

푸른 하늘 무등 태운 맨해튼 구름들
주 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 옥탑방에 세 들어 살고
행랑채 옆 즐비한
일본 주막 아태리 밥집 터키 찻집들
문벌 넓은 대한민국 종택 음덕 쓸쓸히 보내

일제 강점기 보통학교 다녔던
이민 반세기 미국 시민 살만한 노부부
새로 지은 주 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
명패도 벽도 출입문도 열어본다
움집 행랑채 월세 전세 곤궁한 청춘
로우하우스 트윈하우스 단내 나던 중장년
세상에서 가장 비싼 땅 싱글하우스 요족한 노년
눈기에 이슬 내린 노부부 손사래 애교 뒤로
주 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 수수한 청동 명패
인물 좋은 청백리 단단한 가슴에 꽃힌
훈장 같다

주 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은
은빛 나는 미색 빌딩 금싸라기 땅 목 좋은 부동산
완장 찬 관공서 그러나 누가 뭐래도
일본어 아직 유창한 노부부 명치에 걸린
오래 잊었던 종택 사당 삭은 문이다
그 문 때리며 드나들던 날바람의 기억이다

나이 들수록 선명해지는 선친들 세상 살던 때의 수고
그 서늘한 유산이다

바른 말 고운 말

틀리다/다르다

우리가 일상 언어생활에서 잘못 사용하는 표현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아마도 '틀리다'와 '다르다'일 것입니다. 그런데 '틀리다'와 '다르다'는 엄연히 뜻이 다릅니다. '틀리다'의 반대말은 '맞다'이고 '다르다'의 반대말은 '같다'입니다. 따라서 '틀리다'는 '맞지 않았다'는 뜻이고 '다르다'는 '같지 않다'는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사용한 바른 대화의 예문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미국에 있을 때 보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하고 다르더라.”

“미국하고 우리는 다르잖아. 우리는 우리 나름의 상황이 있는 거야?”

위의 두 예문은 미국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은 서로 다르고 또한 미국과 한국은 상황이 다르다는 뜻으로 한 말이지, 어느 나라가 옳고 어느 나라가 그르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틀리다'라는 표현을 쓰면 안되고 '다르다'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소꿉장난/강충강충

많은 사람들이 '소꿉장난'이라고 잘못 쓰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소꿉장난'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소꿉장난'이라는 말에서 나오는 '소꿉'이라는 말은 아이들이 소꿉장난 할 때 쓰는 장난감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소꿉장난'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모음조화, 즉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어울린다는 규칙 때문에 '소꿉장난'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음조화의 예외적인 경우로 '소꿉장난'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산토끼'라는 동요에 '산토끼 토끼야 어디로 가느냐. 강충강충 뛰면서'라는 가사가 나오는데 이 경우도 모음조화의 예외인 '강충강충'이 맞습니다. 또한 의중계 지내거나 이야기할 때 쓰는 '오순도순'이란 표현도 마찬가지로 지입니다. '소꿉장난, 강충강충, 오순도순'은 모두 모음조화의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 낱말맞추기 | 퀴즈를 풀며 정확한 표현을 익혀요.

▶ 2월호 문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2					

▶ 1월호 정답

파	소	나	기		동	반	자
산	호		침		급		
	랑		반	찬		생	고
용	이			성	공		철
고		마	개		격		
집	사		표	창			초
	면	장		문	신		출
떡		조	조		문		어
국	유	림			사	환	람

오른쪽 방향 열쇠

2. 많은 도서를 모아 보관하고 공중에게 열람시키는 시설
4. 한 나라의 통치권 아래 결합하여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
5. 육체가 아니면서 육체에 깃들여 인간의 활동을 지배하며, 죽어서도 육체를 떠나 존재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정신적 실체(實體), 혼령(魂靈)
6. 손을 씻음
7. 새롭거나 신기한 것에 끌리는 마음
9. 다른 지방이나 나라의 풍경, 풍물 따위를 구경하고 즐김
10. 여름철에 여러 날 계속해서 비가 내리는 현상
13. 라디오나 텔레비전에서 사회나 보도, 실황 방송 등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15. 간장을 담는 항아리
17. 우리나라 동해에 있는 섬. 독도 옆에 있죠
18. 우리나라의 전통 민요. '○○○ ○○○아리리요 ○○○ 고개를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임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난다.'
20. 폭 삶은 콩을 띄워서 만든 장의 한 가지로 주로 찌개를 끓여 먹음. 된장과 비슷하지만 냄새가 좀 강해요
22. 사람과 비슷하게 생긴 동물. 손오공이 바로 이 동물이죠

아래쪽 방향 열쇠

1. 남자가 정식으로 부부 관계를 맺음. 반대는 이혼(離婚)
3. 중국의 4대기서(奇書) 중 하나. 명나라 때 오승은(吳承恩)이 지은 고전 대화소설. 삼장법사,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이 나옴
4. 밀가루나 메밀가루 따위를 반죽하여 얇게 밀어 가늘게 썰거나 틀에 눌러 빼낸 식품 또는 그것으로 만든 음식
5.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
7. 김을 매는 데 쓰는 농기구의 한 가지. 세모꼴인 날과 꼬부라진 목에 나무 자루를 끼웠음
8. 내장의 하나로 혈액 순환의 원동력이 되는 기관. 내부는 두 개의 심방과 두 개의 심실로 되어 있음
11. 말을 기르는 곳
12. 벼슬을 할 운수. 관리로서의 운수. ○운이 트이다
13. 육대주의 하나. 동반구의 북부에 위치하며 서쪽은 유럽과 이어짐. 세계 육지의 3분의 1을 차지함. 한국과 중국이 여기에 속함
14. 대한민국의 수도
16. 남의 의견은 묵살하고 저 혼자 모든 일을 처리하는 사람
19. 이탈리아의 화폐 단위

낙동강이 굽이굽이 빚어낸 마을 육지 속의 섬을 거닐다

험준한 산악의 좁은 골짜기 사이를 흐르는 물은 물을 이편과 저편으로 갈라놓는다. 무수히 굽이도는 강물은 용틀임과 뒤틀림을 지속하고, 처처에 비경과 선경을 만든다. 영남 지방을 적시는 낙동강의 수세 또한 내륙에는 드문 섬과 고립된 대지를 형성했다.



1. 한겨울의 예천 회룡포 전경 2. 강으로 막힌 마을을 연결하는 영주 무섬마을의 외나무다리 3. 회룡포에서 가까운 삼강주막

물길로 단절된 전통 촌락, 무섬마을

경상북도 영주시 무섬마을의 행정구역 명칭은 '수도리(水島里)'이다. 뜻을 풀이하자면 '물섬'이다. 주민들은 예부터 무섬마을을 고도(孤島)로 인식했다. 지금은 튼튼한 콘크리트 교각이 놓여 있지만, 30년 전까지만 해도 무섬마을에서 외부로 향하는 통로는 아름드리를 연결한 외나무다리와의 작은 나룻배뿐이었다. 낙동강의 지류인 내성천은 그다지 깊지 않지만, 가장 얇은 지점의 너비도 50m가 넘어 무턱대고 맨발로 건너가는 힘들었다.

세월은 흐르고 산천도 변했지만, 태극 문양으로 설치된 기다란 외나무다리는 여전하다. 수려한 단풍이 드는 가을이면 마을의 명물로 자리매김한 외나무다리에서 이들에 걸쳐 축제가 펼쳐진다.

무섬마을에는 구한말 120여 가구, 500여 명이 거주하기도 했으나 오늘날은 40여 가구만이 남아 있다. 그러나 100년이 넘는 가옥이 16채에 달하고, 문화재로 지정된 한옥이 9채에 이를 정도로 고품이 원연하다. 그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주택은 만죽재(晩竹齋)이다. 반남 박씨의 종가인 만죽재는 경상북도 북부 양반집의 전형적인 구조를 띠고 있다. 사전에 문의하면 만죽재 등 여러 가옥에서 한옥 숙박 체험을 할 수 있다.

유려한 물굽이의 전형, 예천 회룡포

경상북도 예천군의 회룡포는 물굽이가 유난히 급하다. 내성천이 산허리를 끊임없이 깎아낸 탓에 회룡포와 육지는 끊어질 듯, 말 듯 가느다랗게 이어져 있다. 현재도 찾아가기 녹록지 않은 곳이지만, 여름철에 호우가 내리면 발이 묶일 수밖에 없는 회룡포는 과거부터 외딴 오지였다. 한번 들어가면 나오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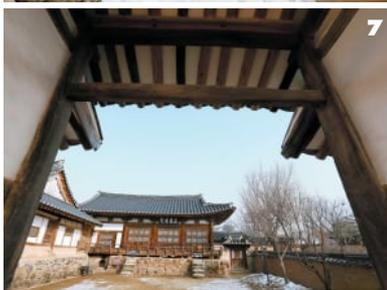
5



6



8



7



9



10

4. 담장이 없는 무섬마을의 고택 5. 밀양 삼문동 도심 전경 6. 회룡포의 골목길 7. 하회마을의 고가 8.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하회마을의 골목 9,10. 무섬마을의 고택 11. 오래된 여인숙이 남아 있는 밀양 삼문동

기가 여의치 않아 단종의 유배지였던 영월 청령포처럼 선비들의 귀양처로 활용됐다. 그러다 조선시대 말엽에 회룡포에서 멀지 않은 의성에 살던 경주 김 씨 일가가 이주해 전답을 일구고, 마을을 이뤘다.

회룡포 마을은 평범한 농촌이자, 역력없는 시골이다. 무섬마을처럼 회룡포 마을에도 내성천 위에 외나무다리가 가로놓여 있다. 오뎀한 오솔길을 따라 걷다 보면 돌담과 정자, 옛 모습 그대로인 삼강주막, 송림을 만나게 된다. 햇살을 받아 일렁이는 강물과 깨끗하게 반짝거리는 은모래도 인상적이다. 봄부터 가을까지는 토마토, 포도, 옥수수를 수확하는 농촌체험 활동도 할 수 있다.

도시에 문힌 물속의 섬, 밀양 삼문동

울산 고현산에서 발원해 낙동강으로 접어드는 밀양강은 경상남도 밀양 시내를 구획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남쪽으로 흐르는 밀양강을 따라 공간이 나뉘고, 시대가 구분된다. 내일동과 가곡동 사이에 끼여 있는 삼문동에는 밀양의 근대와 현대가 절묘하게 뒤섞여 있다. 면적이 3km에 채 미치지 못하는 작은 하중도(河中島)지만, 경관은 매우 다채롭다. 높이 솟은 세련된 건축물과 허름하고 낡은 가옥이 섬 안에 공존한다.

삼문동에서는 시간이 실로 더디

게 흘러간다. 고개를 숙여야 문을 통과할 수 있는 구멍가게, 허름한 여인숙 등이 아직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인적이 드문 소로(小路)에는 이따금 짐을 잔뜩 실은 손수레를 끌고 가는 할머니와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어린이가 지나간다. 성마른 사람은 견뎌내지 못할 만큼 여유롭다. 칸 영화제에서 주변배우 전도연에게 여우주연상을 안긴 '밀양'이란 영화에는 삼문동 동사무소, 카페, 미용실 등이 배경으로 나온다.

강변에 피어난 연꽃, 안동 하회마을

경상북도 안동시 하회(河回)마을에서는 물을 구하기 쉽다. 코앞에 있는 화천(花川)에 나가서 식수를 길고, 빨래를 하면 된다. 마을을 휘도는 내는 화천, 등지고 있는 산은 화산(花山)이다. '하회'라는 말은 '물놀이'를 의미한다.

하회마을의 양반들은 음력 7월 중순이 되면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거슬러 올라가 시를 짓고, 술잔을 나누는 뱃놀이를 즐겼다. 허공에 매단 동아줄에 솟을 묶고 서서히 태우는 줄불놀이도 행해졌다. 요즘은 매년 열리는 축제에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다.

하회마을의 집들은 남향이나 동향을 고수하지 않고, 강을 따라 자연스럽게 건축됐다. 중심부에 모여 있는 선비의 기와집을 초기와 농지가 둘러싸고 있다. 그리고 모든 길은 강으로 통하게 됐다. 강가의 솔숲인 민송정은 북서쪽에서 불어오는 삭풍을 막기 위해 조성됐다.

하회마을을 여행의 마무리로는 부용대가 제격이다. 높이 64m의 절벽인 부용대는 목선을 타고 화천을 건너거나 자동차로 멀리 둘러 가야 닿을 수 있다. 하회마을은 2010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11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 3.0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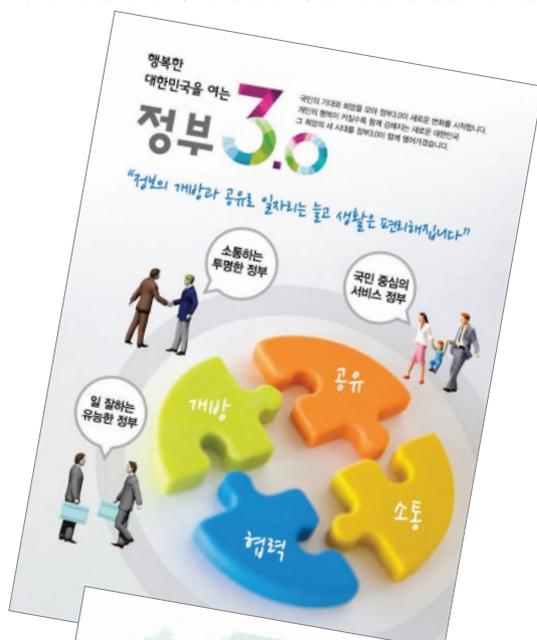
정부 3.0이란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협력함으로써 국정과제에 대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입니다.

국민의 기대와 희망을 모아 새로운 변화를 시작하고 특별한 내일을 준비합니다. 개인의 행복이 커질수록 함께 강해지는 새로운 대한민국 그 희망의 시대를 정부 3.0이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인사 | 재외동포재단 팀제에서 부제로 조직 개편

재외동포재단은 1월 28일 조직의 행정효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현행 1실 1센터 6팀에서 1실 8부로 조직을 개편하고 부서장 인사를 단행했다. 인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전략기획실장 한광수 ▶ 경영지원부장 이훈용
- ▶ 동포단체지원부장 장정환 ▶ 교육지원부장 이종미
- ▶ 조사연구부장 김봉섭 ▶ 한상사업부장 김재영
- ▶ 차세대사업부장 강윤모 ▶ e-한민족사업부장 장홍중
- ▶ 홍보문화사업부장 박종환 ▶ 검시역 조형재



동포사회 생생한 소식을 기다립니다

한인 사회의 다양한 소식(한인회, 상공회, 한글학교 행사 등)과 이민의 애환이나 널리 알고싶은 미담 등을 보내주시면 게재해서 고국과 전 세계 한인사회에 전하겠습니다. 자랑할 만한 소식, 미담, 성공적인 행사 등 이모저모를 글과 사진으로 전해주세요.

원고 보낼 곳: wakaru@yna.co.kr
shaorong@okf.or.kr
(원고 A4 한장 이내)





독도 공식 웹사이트 <http://dokdo.mofa.go.kr/>

한국의 아름다운 섬, **독도**



대한민국 정부의 독도에 대한 기본입장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입니다.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으며, 독도는 외교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확고한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게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수호해 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동쪽 끝에 위치한 아름다운 섬 독도는 동도, 서도와 89개의 부속도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천연기념물 제 336호인 독도는 60여 종의 식물, 129종의 곤충, 160여 종의 조류와 다양한 해양생물의 서식지이며, 동해안에 날아드는 철새들의 중간 기착지이기도 합니다. 자연생태계의 보고인 독도는 인간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진 우리의 소중한 유산입니다.

재외동포의 모든것,

KOREAN  NET 으로 통합입니다.



재외동포 전문포털 코리아넷

www.korean.net



재외동포 관련
다양한 정보제공



한국 역사
한국 문화 콘텐츠



주요 재외동포
인물·단체 정보



재외동포단체 홈페이지
제작·지원 서비스



온라인 초청
지원사업 신청



재외동포단체
SNS 서비스



비즈니스 교류
및 정보 제공



한국어 한국문화
학습 콘텐츠

WWW.KOREAN.NET

WWW.KOREAN.NET

WWW.KOREAN.NET

WWW.KOREAN.NET

WWW.KOREAN.NET